

‘광주 통합돌봄’ 주목…‘전남 우주발사체’ 우뚝



김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월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시·도지사 회담을 갖고 공동 발표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1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의미있는 진전’

2023년은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진 한해였다.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은 양 시도의 최대 현안이자 오랜 숙원이지만 10년여간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왔다. 그러다 올해 국가지원을 핵심 골자로 한 ‘광주 군 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다시금 활기를 띠었고 함평군이 군공항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선택

지가 넓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무안 이전을 위해 적극 나섰다. 그러나 무안군의 강한 반발과 함평 내부의 분열 등 복잡한 계산이 얹히면서 다시금 제동이 걸렸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17일 강 시장과 김 지사가 나주에서 ‘2차 회동’을 통해 ‘KTX 무안공항역 개통 시기에 맞춰 이전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졌다.



3 광주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성공 안착

올해 최고의 광주시 정책으로 선정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형태는 본인 신청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관리담당 공무원원을 지정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 계획을 세웠다. 16개 신설 서비스를 지원하고 은둔과 고립가구를 사전에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97개동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368명을 사례관리담당 공무원으로 배치했다. 이같은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 광주시는 지난 7일 광주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4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유치 운동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에 따라 의료여건이 취약한 전남에서 국립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1월 도민을 대표하는 정책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사회단체 대표 등 333명이 참여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신설정원의 우선 배정이 반영되도록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를 이끌 14명의 집행위는 최근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보건 의료단체를 설득할 전략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지난 5월 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뉴스

2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주 강국 도약

지난 5월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다. 3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처음 참여하고 실용 위성을 탑재한 첫 실전 발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히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고, 우주로 향한 원대한 꿈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으로 기록됐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가 우주발사

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가운데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등 전남도는 겹경사를 맞았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는 2028년까지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액체·고체 기반의 발사체 기업을 입주한다. 전남도는 국가산단에 입주할 입주기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5 ‘역대급 성황’ 전국체전·순천정원박람회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외 4만명의 선수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석했으며, 120만명이 추가로 방문해 국민대화합 및 감동체전을 펼쳤다. 지역 단위 체육행사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역량을 국내외에 선보였다. 전남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돋보인 이번 체전에 전국에서도 관심과 찬사가 쏟아졌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천만 신화’를 썼다. 약 980만명 방문, 수익금 333억원 달성 등 역대급 성과를 거뒀으며 국내외의 벤치마킹이 잇따랐다.



6 위니아의 몰락... 지역경제 ‘흔들’

광주에만 300여곳의 협력업체를 둔 대우위니아그룹의 계열사 5곳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역 가전산업을 비롯한 경제계 전반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부도에 따른 체불 임금만 800억원 규모를 넘겼으며 최근까지 광주지역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133개사, 8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관련 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금융권 등은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지역 산단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각 분야에서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심사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 정상화 등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7 고위직까지... 검경 브로커 일파만파

일명 ‘검경 브로커’ 성모씨가 불러온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브로커 성씨는 광주지검이 8월 초 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성씨는 40대 중반의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탁모씨에게 수사무마 대가로 18억 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검찰은 성씨의 전방위적 불법 로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성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수사관 1명, 전직 경찰관 4명이 구속됐다. 검찰이 성씨의 지지세력 관공공사 주주 비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대규모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8 복합쇼핑몰 가시화... 광주 유통계 변화

올 한해 광주에서는 대형 유통가가 지역 최초 복합쇼핑몰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신세계의 ‘아트 앤 컬처 파크’는 최근 기존 백화점 확장안을 전면 폐기하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금호 유스퀘어문화관으로 확장 방향을 선회해 오는 2026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지난 22일 어등산 개발 사업 민간개발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행정철자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전남·일신방직 공장부지 ‘더현대 광주’는 오랜 기간 이어진 광주시와의 공공기여금 사전 협상을 마치고 개발 사업에 본격 나섰다.



9 전우원 양심고백, 5·18진상조사위 종료

어느 날 등장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의 폭로와 특전사최 초정으로 촉발된 5·18 단체들의 갈등이 광주의 5월을 뒤흔들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도 4년 만에 매듭지어졌다.

전씨는 지난 3월 SNS 계정을 통해 “할아버지(전두환)는 ‘학살자’라는 발언과 함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후 뉴욕에 거주하던 전씨는 귀국해 광주를 찾아 5·18유족들을 만나 직접 사죄했다. 한편 지난 26일 5·18조사위의 4년간의 활동이 막을 내렸지만 발표 명령자, 헬기 사격 등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조사위는 앞으로 6개월간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0 ‘돌풍’ 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

2023년은 광주FC에게 기적 같은 한 해였다. 지난해 K리그2 역대 최단기간 우승과 역대 최다 승리(25승), 홈경기 전 구단 상대 승리 등 역대급 시즌을 완성했던 이정호 감독이 ‘초보 감독’ 딱지를 떼고 ‘돌풍의 주역’으로 거듭났다.

광주FC는 올 시즌 이정호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단의 간절함 등을 자양분 삼아 구단 역사상 1부리그 최다 승리(16승·종전 2016년 11승)와 승점(59점·종전 2016년 47점)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또 창단 후 처음으로 1부리그 전 구단 상대 승리와 함께 3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13년 만에 아시아 무대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